

〈KMA 리더십트립 - 역사편〉

진정한
리더의 본질을,
담다

역사학자 33인이 선정한 위대한 한국유산 및 위인중심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여행지 선정
위대한 인물의 삶의 철학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
남도, 가보지 못한 설레임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
명상과 사색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Hi Story Place in 남도 (진도,해남,강진 편)



진정한 리더의 본질을 담다

본 과정은 총1박 2일간 전라남도 진도, 해남, 강진 등 남도 주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현직 교수진의 해설과 강연이 함께하는 KMA Leadership Insight Program입니다.

01 과정개요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경영의 현장에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리더, 혹은 분주한 삶 속에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 고민하는 직장인 이라면, 앞선 시대에 살아간 현인들의 삶의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요구되는 수많은 역량을 모두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삶의 원칙이 있는, 자신의 일에 혼을 담은, 잃지 말아야 할 리더로서의 진정성을 이야기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당당한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리더의 길’을 제시 할 것입니다.

02 과정특징

- ◆ 역사학자 33인이 선정한 위대한 한국유산 및 위인중심 현지답사 체험 프로그램
- ◆ 위대한 인물의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는 스토리 답사 프로그램
- ◆ 역사, 경영, 문학 등 현직 교수진이, 리더의 관점에서 해석한 해설과 강연이 함께하는 리더십 인사이트 프로그램
- ◆ 명상과 사색 등 생각의 여유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한 자기성찰 및 내재적 동기부여 프로그램
- ◆ 감성과(설레임과 즐거움) 이성이(교육 인사이트) 조화된 교육 프로그램

03 과정일정

- ◆ 교육일정 : 2016년 9월 27일(화) 오전 8시 ~ 9월 28일(수) 17시 / KMA 리무진 버스 이용
- ◆ 출발장소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6번 출구 앞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_ 오전 8시 출발



04 상세일정

구분	시작	종료	소요시간	프로그램
1일차	8:00	12:00	240분	중식 - 아름다운 식당 (동태탕, 돼지주물럭)
	12:30	13:30	60분	우수영 (울돌목) - 흔들리지 않는 리더를 만나다 (원칙과 소신을 가진 리더 이순신)
	14:00	15:00	60분	녹우당, 윤선도 유적지 - 원칙있는 삶의 길을 걷다 (수신 근행 적선의 덕목)
	15:30	16:00	90분	유선관 - 휴식
	16:00	16:40	60분	대흥사 - 희생과 헌신의 일깨움
	17:00	18:00	60분	두륜산 정상 등반
	19:00	20:30	90분	석식 - 독천낙지마당 (갈낙탕, 낙지탕탕이, 호롱이)
	20:30	~		현대목포호텔 체크인 숙박
2일차	7:00	9:00	120분	아침조식
	9:50	11:20	90분	다산초당 & 백련사 -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의 숨결! 18년의 위배속에 본질을 잃지 않는 리더
	11:40	12:10	30분	정약용 사의재 - 네가지를 마땅히 해야할 곳! (생각, 언어, 행동, 용모)를 올바르게 하는 곳
	12:10	13:00	50분	중식 - 수인관 혹은 남도한정식
	13:00	13:30	50분	영랑생가
	13:30	17:30	240분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

05 동행강의 및 해설 교수진



KMA 이승상 교수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KMA고전리더십 담당교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체계 자문위원



KMA 김경영 교수
 해군사관학교 졸업, 국방대학교 전략석사
 해군대학 전략리더십 교수
 KMA 고전리더십 및 전략적 사고교수
 미국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소
 해군전투함 함장
 참모총장 비서실 지휘관리 과장

06 교육비 및 기타문의사항

- ① 교육비: 65만원/1인당 (비회원사 69만원 /1인당), 6명 이상 단체신청 60만원/1인당
- ② 기타사항: 숙박 - 목포 현대호텔 1인 1실 배정, 식사 - 강진,해남,목포 현지 4식 제공 [지역 대표 맛집]
- ③ 프로그램문의: KMA 인재개발본부 서동일 팀장 02-3274-9311, diseo@kma.or.kr
- ④ 교육신청: KMA 홈페이지 www.kma.or.kr

진도, 우수영 : 중심이 명확한 리더의 모습



중심이 명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원칙과 소신을 가진 리더 이순신을 만나자

리더가 하는 일은 무엇이기에 리더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할까?

리더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며, 또 앞으로 어떠한 리더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여기 원칙과 소신으로 명확한 중심을 지니고 있었던 리더 이순신을 만나보자.

이순신은 문무를 겸한 당대뿐 아니라 후세에도 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경제, 정치 등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상을 제시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고 리더의 자리부터, 리더를 따르는 보통 사람의 모습, 또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이순신의 면면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특히, 이곳 진도는 최근 영화 '명량'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이순신이 가진 리더로서의 진면목을 짐작케 할수 있는 일화가 담긴 곳이다. 승산 없는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 뒤에는, 문제의 본질부터 생각하는 올바른 원칙, 실력과 자기연마를 통해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리더로서의 자기소신과 철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순신, 그 영웅의 삶도 고뇌하고, 고독했고, 눈물 많았던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리더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소신은, 우리 역사 속 가장 존경받는 리더 이순신을 탄생시켰다.

해남, 윤선도 유적지 : 원칙이 있는 삶의 ‘길’을 걷다



수신 근행 적선이 제1의 덕목! 벼슬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삶의 길을 걷다

윤선도선생은 조선중기에 호남이 낳은 대시인이며, 조선조 시조문학을 마지막 장식한 대가로 알려진 분이다.

선생은 학문만이 아니고 철학을 위시해서 경사서 제자백가에 통달하여 정치, 학문, 예술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천문, 음양지리, 복서, 의약 등 다방면에 통달하였으며, 원림경영과 간척사업을 하여 오늘날까지 전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조문학을 으뜸으로 꼽는다.

해남의 한 분으로서 향현사인 해촌서원(해남읍 해리 소재)에 배향된 선생은 전란과 당쟁이 소용돌이치는 격랑의 사회 현실 속에서도 강직한 성품의 선비로 조선시대의 손꼽히는 지성이셨다.

정치의 중심에서 나라일을 맡았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국가경영의 대도를 역설하셨고,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 결과 세 차례에 걸쳐 십수년의 유배생활을 하시는 등 유배와 출사, 은둔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근본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정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잘 형상화하여 국문학의 비조로서 우리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분이다.

인생의 덕목을 벼슬에 두지 않고 수신과 근행, 적선에 두어 인자한 행실과 검소절약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자신의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한 그의 삶의 행적을, 가을의 총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곳을 거닐며 되새겨보도록 하자.

강진, 다산초당 : ‘본질’을 생각하라!



‘금은 돌밭에 버려져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위대한 까닭 중 하나는, 위정자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삶 자세를 보여준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금은 돌밭에 버려져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이 돌밭에 버려진 자신을 돌맹이로 생각하면 그만 본질을 잃게 된다. 다산 선생은 18년이란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위정자의 본질임을 잃지 않았다.

특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유배생활이라는 생애의 한겨울 속에서 동백꽃처럼 붉게 학문과 사상을 피웠다.

이곳에서 그는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 ‘다산학’이라 일컫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였으며, 가족과 헤어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적 고뇌와 아픔이 뼈에 사무친 곳이기도 하다.

- 다산초당을 올라가는 뿌리의 길에서, 정호승 시인

‘사색과 명상의 길’ _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

오솔길과 산길이 교차하는 이 구간은 속세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거대한 소나무 숲이 만들어 낸 그늘을 걷다보면 풀벌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를 가득히 들을 수 있다. 다산이 강진에서 지내면서 유배의 억울함을 토로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에게 하소연한 기록도 없다. 어쩌면 그가 묵묵히 유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걸러준 이 ‘뿌리의 길’ 덕택이 아닐까 한다.

다산초당을 올라가는 뿌리의 길, 잠시 나를 돌아보는 사색을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강진, 사의재 :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마음을 가다듬다



**실의에 빠진 순간,
더욱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자 했던,
사의재를 반드시 기억하라!**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을 다시 일어서게 해준 곳으로 유명하다. 1801년 11월, 처음 강진으로 유배생활을 시작한 곳이다. 당시, 유배 온 정약용 선생과 가까이 하는걸 두려워하여, 마땅히 살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약용 선생에게, 주막집 할머니의 배려로 골방 하나를 얻어 거처하던 곳이다. 거처를 얻게 된 다산은 오막살이 주막의 뒷방에 사의재(四宜齋)라는 지극히 선비다운 당호를 붙이고 만 4년을 지냈다. 사의재란 마땅히[宜] 지켜야 할 일을 네 가지[四] 조목을 제시한 것으로, ‘담백한 생각, 장엄한 용모, 과묵한 언어, 신중한 행동’으로 자신을 단속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수양 방법인 동시에 유배 생활로 좌절해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결의였으며, ‘경세유표’와 ‘애절양’ 등의 저서를 이곳 사의재에서 집필하였다.

겨울 창 밖으로 지나가는
딱딱한 구름과 술을 들더라도
눈물이 술이 되면 일어나 다산 주막으로 가라
술병을 들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무릎으로 걸어서라도 다산 주막으로 가라

강진 앞바다 갯벌같은 가슴을 열고
다산 선생께서 걸어나와 잔을 내미실 것이다.
참수당한 눈물의 술잔을 기울이실 것이다.
무릎을 꿇고 막사발에 가득
다산 선생께 푸른 술을 올리는 동안
눈물은 기러기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 사의재에서 정호승 시인 -

식사 (남도의 맛과 함께하다)

교육이 진행되는 전 일정에,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과 메뉴를 엄선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남도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특색있는 음식 외에도, 교육을 마친 후 떠나기 전 동문주막에서 걸치는 막걸리 한잔은 특별한 의미와 추억을 남기게 할 것입니다.

- 1일차 아침 출발시 (08:00)에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만 제공합니다
- 2일차 조식은 호텔조식을 이용합니다.



영암 독천낙지마당 (1일차 석식)

최근 목포하면 가장 떠오르는 음식
낙지탕탕이, 호롱구이, 갈낙탕 제공



대흥사 입구 유선관(간식)

전통한옥의 최고의 여관
시원한 계곡을 배경으로
파전과 도토리묵



강진 수인관 (2일차 중식)

유홍준 교수 나 의 문화유산답사기
에서 소개된 강진의 맛 집 수인관.
연탄불 돼지불고기 정식



목포현대호텔

숙박 : 1인 1실
호텔 아침조식 제공

교육참가 신청서 (이메일 접수용_역사편)

◆ 신청담당자 정보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 교육참가자 정보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용도) :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용도) :

성명 :	회사명 :	직위 :
직장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가입 용도) :

본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용입니다. 작성 후 KMA 인재개발본부 diseo@kma.or.kr 로 송부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274.9311 서동일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